

# 페르시아灣岸 6個國 工業化현황

##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 원유생산량의 2회 이상을 製品化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페르시아灣협력회의(GCC) 6개국은 1兆달러가 넘는 거액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자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하면서 과도하게 석유의존적인 경제체질로부터의 탈피를 추진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등 6개국중 몇 나라는 그러한 脱石油정책의 공업화를 목표로 삼아 매진함으로써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은 물론 알루미늄정제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두개의 표는 GCC 6개국의 重化學 공업관련 현황이다. 국별로 보면, 사우디/카타르/바레인 등이 적극추진국이고, 쿠웨이트 등은 소극적이다, 즉 전자들은 개발계획 당초부터 중화학공업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쿠웨이트는 공업화 보다도 오히려 금융업국을 목표로 삼았다는 정책방향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공업화 추진방향의 차이에 따라 각국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중 차지하는 비율도 두가지로 나타난다. 86년 시점에서 쿠웨이트와 오만은 각각 GDP중 제조업부문 비중이 5% 전후임에 비해 나머지 4개국은 대개 10%를 확보하였다. 말하자면 경제구조 다각화의 일환으로서 공업화추진이 이들 4개국에서 착실

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석유정제부문을 보면, GCC 6개국이 일제히 진출을 목표로하였다. 87년 시점으로 6개국합계 정제능력은 274만b/d나 되고 석유제품 수출량도 170만b/d에 달했다. 이는 同지역 산유량(784만b/d)의 20% 이상이 제품으로 정제되어 수출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석유정제품이 원유 이외의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아 외화가득 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 석유화학공업은 에틸렌 생산능력으로 볼 때 88년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97만톤, 카타르가 약 30만톤을 생산하였다. 사우디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초산업공사 = SABIC」의 계열합작회사가 10개로서 에틸렌 이외에도 메타놀이나 염화비닐모노머 등 약20종의 석유화학제품을 만든다. 그 수익성도 좋은 편이어서 88년 상반기 SABIC社 전체의 순이익 4億달러중 석유화학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알루미늄製鍊사업은, 현재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聯속의 두바이가 각각 연간생산능력 170만톤 및 14만톤의 플랜트를 가동시켜 거의 전량을 수출한다. 이 두나라의 알루미늄 제조원가는 세계평균의 7할 정도이므로 알루미늄사업 수익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3개부문은 생산플랜트가 풀가동상태로서 수익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표-1〉 GCC국가의 重化學工業 진출현황

	바 레 인	쿠 웨 이 트	오 만	카 타 르	사 우 디	아랍에미리트
石油精製	○	○	○ ※	○	○ ※	○ ※
石油化學	△	○ ※	—	○	○ ※	—
알루미늄製練	○ ※	—	—	△	△	○ ※
鐵 鋼	—	—	—	○	○	—

〈註〉 ○=진출완료, △=계획중, ※=89년 3월 현재 확장계획중임.

설비확장 및 신설계획이 한창 입안되고 있다. 이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90년대 중반에는 GCC 6개국의 석유정제/에틸렌생산/알루미늄제련의 설비능력이 각각 323만b/d 연산280만톤/연산 110만톤에 달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접하는 세어가 각각 4~7%대를 확보하게 된다.

### 거액투자 촉진하는 오일·머니

GCC회원국들이 이러한 공업부문에 약진하게된 요인은 다음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經費 및 원료코스트가 낮다는 점이다. 석유정제사업의 원료는 原油이고, 석유화학의 원료는 주로 천연가스이다. 특히 天然가스로 말하자면 종전에 원유채굴시 얻어지는 隨伴가스를 그냥 소각해 버리던 것을 이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알루미늄제련에는 많은 전력이 소요되지만, GCC 6개국에서는 發電코스트가 매우 낮은 것이다.

둘째요인은, 각부문 플랜트 마다 최신설비로 건설되고 동시에 조업상으로도 최첨단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동시의 제품수율이 높고 인건비효율도 높으므로 결국 생산·운전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듯 하드웨어면과 소프트웨어면에서 최고수준의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 판매수입 즉 오일머니가 많이 축적됨으로써 거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때문이다.

셋째요인은, 해당상품시세의 회복경향이다. 즉 최근의 세계적 호경기에 따라 소재수요가 확대되고 시세가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이런 「행운」이 성공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GCC제국의 공업화가 성과를 올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70년대 중반 공업개발계획 수립당초에 설정했던 자동차/造船/전기/기계를 포함한 전반적공업화라는 목표에 비교하면, 실패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GCC국가의 공업화란 것은 석유·천연가스를 원료로하는 공업화 또는 에너지 多消費型공

〈표-2〉 GCC국가의 重化學製品 생산량 및 계획

(단위: 천톤)

	바 레 인	쿠 웨 이 트	카 타 르	사 우 디	아랍에미리트
石油化學	(프로필렌 100) (폴리프로필렌 100)	폴리프로필렌 60 (폴리프로필렌 15)	에틸렌 263 폴리에틸렌 174	에틸렌 1,970 폴리프로필렌 902 (에틸렌 500)	—
알루미늄製練	170 (55)	—	(240)	(220)	140 (270)
鐵 鋼	케렛트 4,000	—	棒鋼 533	棒鋼 1,100	—

〈註〉 ① 석유화학의 카타르項은 1987년 실적이며, 그 이외의 수치는 1988년 실적임.  
 ② 괄호속의 수치는 89년 3월 현재 계획중인 생산능력의 純增加 예상분임.  
 ③ 알루미늄製練/쿠웨이트의 석유화학/바레인의 케렛트 등은 생산능력임.

업화로 한정시 되기도 한다.

그들의 공업화가 제약을 받게 된 주요인으로서는 다음 4가지가 설정된다.

- ① 석유 공급과잉에 의한 油價하락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수입이 감소했다.
- ② GCC국가들 자체의 시장규모가 작다.
- ③ 노동력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모두 한정되어 있다.
- ④ 輸入關稅가 전반적으로 낮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을 극복해낸 것이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는 석유정제/석유화학/알루미늄製練 등의 부문이다. 또한 신규플랜트 건설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쿠웨이트 및 오만을 제외한 4개국(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聯合)은 이러한 제약을 어렵게나마 극복하면서 공업화추진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석유정제/석유화학/알루미늄製練의 플랜트신설 움직임이 있으므로 그 사업의 장래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 경제블록화 위해 결속

한편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는것 이상으로 GCC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 현안대응책일 것이다.

첫째, 페르시아灣 협력회의의 域內에서의 제품수출을 위해 GCC가 「블록화」를 위해 결속한다는 것으로, 이는 對 外교섭력을 강화하는 대응이 된다. 둘째는, GCC국가들의 輸入關稅를 인상하는 일이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88년1월부터 국산품보호 목적으로 일부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종전 10%에서 20%로 올렸다. 셋째 대응책은, 무기등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 그 보상적인 조건으로 환원투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오프셋트計劃」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대응만으로 충분치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GCC의 공업기반을 보다 강화하려면,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온 석유정제/석유화학/알루미늄製練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자조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GCC諸國은 新型공업화 모델

앞으로 장기적관점에서 보면, 이들 6개국이 기술수준향상에 의한 제품코스트 인하 그리고 품질관리 및 판매기술축적을 이루어 가격면에서나 비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 동시에 숙련공·기능공양성과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여하히 추진하느냐가 관련산업 육성발전에 주요인자가 될 것이다.

최근 석유·석유화학의 제품수요가 착실히 증가되고, 사우디 및 쿠웨이트등의 석유하류부문 진출로 말미암아 제품판매 수입이 늘고 안정된 판로개척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GCC공업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동향이 밀반침이 됨으로써 국내공업화가 더욱 촉진된다는 「好순환」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상기 발전된 3부문에서의 플랜트 신·증설현상은 GCC가 석유관련공업을 주축으로 공업화성취에 자신 있음을 표출하는 것이며, 아울러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의 확립을 축으로한 아시아 NIES(신흥공업경제권) 및 東南亞聯盟(ASEAN)과는 또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를 이룩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석유소비국입장에서, 장기적 국제석유수급문제를 바탕으로 GCC각국 실정에 따라 협력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석유공급원안정만이 아니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등의 소재상품 시세를 안정시키는데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분석되는 것이다. ♣

관심어린 대화속에 복된가정 밝은사회